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현상에 관한 연구

지혜경[†] · 이은영^{*}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Intra-industry Phenomena of Clothing Trade in Korea

Hye-Kyung Ji[†] · Eun-Young Rhe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10. 14. 접수; 12. 1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tra-industry phenomena of Clothing Trade in Korea. For this purpose, changes of Korean clothing trade we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theory of intra-industry trade during the 1990's.

Formerly, changes of Korean clothing trade were analyzed by the trade orientation index and that of the trade with each Korean clothing trade partner particularly. secondly, tendency and major determinants of two-way trade or intra-industry trade of Korean clothing trad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trade pattern of clothing in Korea was strong export orientation. Since the mid 1990's, however, this tendency has been weakened.

Second, tendency of one-way trade is strong generally, but since the mid 1990's, tendency of intra-industry(two-way) trade increased. The intra-industry(two-way) trade tendency with Hong Kong and China is especially strong.

Third, from the viewpoint of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in clothing industry, the determinant is distance between countries in 1994. Also the determinant is trade tendency of the country in 1999.

Key Words: clothing trade(의류무역), intra-industry trade(산업내무역), one-way, two-way trade(일방무역, 쌍방무역), trade orientation index(무역특화지수)

I. 서론

한국의 의류 수출은 1962년 이래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89년에는 최고 92억4

천3백만 달러에 달하였고 의류 수입은 8천만 달러로 미미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1989년의 약 절반 정도인 50억4천만 달러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의류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13억1천8백만 달러로 1989년의 16배나 급증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의 의류무역이 이전의 현저한 수출편향 무역에서 쌍방무역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

[†]Corresponding author ; Hye-Kyung Ji
Tel. +82-18-235-8683, Fax. +82-2-760-4484
E-mail : hkjee@hansung.ac.kr

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제품군, 즉 같은 산업에 속하는 제품들이 국가 상호간에 교역되는 현상을 쌍방무역(two-way trade) 혹은 산업내무역(intra-industry)이라고 한다(123). 산업내무역은 다음과 같이 소비자 후생면, 산업정책면, 국제교역면의 이점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 첫째, 소비자 후생적 측면에서는 산업내무역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이 국가간에 교역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기업의 경쟁촉진과 이에 따른 상품의 균형가격이 하락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산업내무역이 증가하면 기업의 경쟁이 촉진되어 수확체증산업이 증가하고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는데 이는 산업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생산 증대효과로 나타난다. 또한 산업내무역의 증대는 산업간무역보다 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무역정책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통상압력 및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⁴⁾.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한국 의류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산업내무역이론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 의류무역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출특화 및 수입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1990년 이후의 한국 의류무역 형태를 분석하고 이어 무역특화 경향을 토대로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산업내무역 경향과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한국의 의류수출입 경향을 예측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의류무역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산업내무역 이론의 배경 및 의미

오늘날 국제무역은 다른 산업의 상품들 간에만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종 산업내의 상품간 무역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거 전통적 무역이론만으로 무역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 무역이론 중 하나인 헷서-오린 이론에 따르면, 무역국간의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의해,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 상품을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는 산업간무역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국제무역은 헷서-오린 무역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요소집약도가 상이한 이종 산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종 산업내의 상품 교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요소부존도가 다른 국가간의 교역보다는 요소부존도가 서로 비슷한 국가간의 교역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⁵⁾

이원복⁶⁾은 세계 무역이 점차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 분업이 심화되고 EU와 같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으로 역내분업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산업내무역으로 칭해지는 형태의 교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도 한국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내무역의 증대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박수철⁷⁾은 한국 경제가 지난 수십년 동안 해외수출을 통하여 고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세계 경제질서를 새롭게 규명하는 WTO 체제하에서는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시행해야 하는 개방화 조치의 확대에 따라 국제경쟁력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EU와 같은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으로 역내분업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산업내무역으로 칭해지는 형태의 교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윤식⁸⁾은 산업내무역이 선진국뿐 아니라 꾸준한 경제성장을 누려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권에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며, 한국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각 국간 산업구조의 유사성에 따른 무역마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가 가능한 제조업부문에 산업내무역의 증진을 통한 무역구조 고도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김영남⁹⁾은 한국은 신보호주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등 세계 경제 환경 및 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산업간 특화를 통한 수출증대가 한계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산업내무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 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섬유·의류무역에서의 산업내무역의 의의

이영선¹⁰⁾은 오랫동안 한국의 산업정책이 산업간 특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수출품이 다양화되고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산업간의 특화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하며, 비록 같은 범주에 속한 상품일지라도 상품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상품의 질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에서 비교우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산업정책에서 산업내 특화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산업내 특화는 섬유산업과 같은 경공업부문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하며, 산업간의 특화만을 강조한 산업정책은 섬유산업을 사양시키고 중화학산업에 투자를 유인할 것이나 산업내 특화를 고려한다면 섬유산업 내에서도 고가품의 개발을 통해 계속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승진¹¹⁾은 앞으로 한국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의 증진이 시급하다고 하며, 산업내무역 중에서도 부품을 수입하여 그것을 상대적으로 싼 노동력으로 조립 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아니라 동일한 기술수준으로 생산되는 부품(완제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제조업부문 중 의류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잡제품(SITC 8류) 부문은 산업내무역의 진전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고 하며 이 부문의 산업내무역을 제고시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기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UN 발행의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¹²⁾, Commodity Trade Statistics¹³⁾과 OECD 발행의 “Foreign Trade by Commodities”¹⁴⁾,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¹⁵⁾에 공표된 1990-2000년의 연도별 의류 수출입액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2. 분석 방법

(1) 무역특화 경향 분석

1990년 이후 한국의 의류무역 형태 변화를 수출편향, 수입편향 경향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출편향, 수입편향 정도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교역대상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국을 미국, 일본, 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시아(홍콩, 중국)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무역특화 경향은 수출특화 혹은 수입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무역특화지수는 해당 상품의 순수출액이 그 상품의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즉 동일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면 지수값은 0이 되고, 수출은 많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는 +100이 되어 완전 수출특화 상태를 나타내며, 반대로 수입은 많지만 수출이 없는 경우는 -100이 되어 완전 수입특화 상태를 나타낸다.¹⁶⁾

$$\text{무역특화지수} = \frac{X_{i,j} - M_{i,j}}{X_{i,j} + M_{i,j}} \times 100$$

$X_{i,j}$: 일정기간 동안 i 국가의 j 상품에 대한 총수출
 $M_{i,j}$: 일정기간 동안 i 국가의 j 상품에 대한 총수입

(2) 산업내무역 경향 분석

1990년대의 의류 무역 변화 추세에 근거하여, 한국의 의류 무역의 산업내무역 정도 및 주요 교역대상국 지역별 차이와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교역대상 지역은 미국, 일본, 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시아(홍콩, 중국) 등으로 세분하였다.

주요 교역대상국별 산업내무역 정도는 각 교역국에 수출입된 의류 품목들을 일방무역 품목 혹은 쌍방무역 품목으로 구분한 후 쌍방무역 품목의 총 교역품목에 대한 비중으로 구하였다. 각 품목의 일방 혹은 쌍방 품목의 구분은 Fontagne & Freudenberg¹⁷⁾의 정의에 따라 한국과 교역국간의 각 품목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한 쪽 금액이 다른 쪽 금액의 10% 이하이면 일방 교역품목으로, 10%를 초과하면 쌍방 교역품목으로 분류하였다.

$$\text{일방 무역(OWT: One-Way Trade)} : \frac{\text{Min}(X_{i,j}, M_{i,j})}{\text{Max}(X_{i,j}, M_{i,j})} \leq 0.1$$

$$\text{쌍방 무역(TWT: Two-Way Trade)} : \frac{\text{Min}(X_{i,j}, M_{i,j})}{\text{Max}(X_{i,j}, M_{i,j})} > 0.1$$

$X_{i,j}$: 일정기간 동안 i 국가의 j 상품에 대한 수출
 $M_{i,j}$: 일정기간 동안 i 국가의 j 상품에 대한 수입

(3) 산업내무역 결정요인 분석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경향이 교역대상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전체 산업 혹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¹⁸⁾¹⁹⁾²⁰⁾²¹⁾²²⁾ 사용된 <표1>의 요인들을 사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표1>의 가설은 전체 산업 혹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의류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역대상지역은 <표2>과 같이 한국과 의류무역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38개국으로 하였으며, 대상 시기는 1990년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여 1994년과 1999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산업내무역 정도는 총무역 중에서 쌍방무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산업내무역지수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²³⁾²⁴⁾ 본 연구에서는 Grubel & Lloyd²⁵⁾의 산업내무역지수(G-L 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의류무역의 쌍방무역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종속변수 및 각 독립변수의 측정은 <표3>의 방법으로 하였다.

결정요인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의 측정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과 교역대상국간의

<표1>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가설

변 수	가 설
양국의 경제규모(+)* (LAY)	경제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제품 생산에 있어 차별화된 제품수의 증가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할 것이다
양국간 경제규모의 차이(-) (DLAY)	양국간 경제규모의 차이가 클수록 생산되는 제품의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업내무역은 활발하지 못할 것이다.
양국간 1인당 국민소득수준의 차이(-) (DPCI)	양국간의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들 국가간에 기호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시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간의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양국의 요소부존 비율(+) (KL)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와의 무역보다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와의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더욱 클 것이다.
양국간 요소부존 비율의 차이(-) (DKL)	양국간의 요소부존비율이 유사할 경우 양국은 생산에 있어 비슷한 요소집약도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상품들을 많이 생산할 것이고 이러한 유사한 상품들로부터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상호간에 서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산업내무역이 증진될 것이다.
무역성향(+) (TRADE)	무역성향이 높은 나라일수록 교역국의 수요패턴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것이므로 산업내무역은 증가할 것이다.
양국간의 지역적 거리(-) (DIST)	양국간의 운송비용이 클수록(지리적인 거리가 멀수록) 양국간의 산업내무역의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지리적 근접성은 심리적, 문화적으로 소비유형을 유사하게 하여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교역을 증가시킬 것이다.
신흥공업국에 대한 터미변수(+) (DUM)	한국과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신흥공업국과의 교역에서 산업내무역은 증가할 것이다.

*(+), (-)는 가설의 기대부호를 말함.

〈표2〉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요인 분석을 위한 대상국과 대상년도

분석대상시기	1994년, 1999년
분석대상국 (38개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폴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러시아 연방,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이집트, 나이지리아

〈표3〉 한국 의류무역의 쌍방무역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측정

변 수		측 정
종속변수	종속변수산업내무역지수 (G-L지수)	$1 - \frac{ \text{의류수출액} - \text{의류수입액} }{(\text{의류수출액} + \text{의류수입액})}$
독립변수	양국의 경제규모(+) (LAY)	· 양국의 경제규모의 평균값 · 경제규모의 대응변수는 각 국의 GDP
	양국간 경제 규모의 차이(-) (DLAY)	· 양국간 GDP 차이의 절대값을 양국 GDP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양국간 1인당 국민소득수준의 차이(-) (DPCI)	· 양국간 1인당 국민소득 차이의 절대값을 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 1인당 국민소득은 각 국의 GDP를 총인구로 나눈 값
	양국의 요소부존 비율(+) (KL)	· 양국의 1인당 자본량의 평균값 · 1인당 자본량은 각 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중 총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지출을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
	양국의 요소부존 비율(+) (KL)	· 양국간 요소부존비율 차이의 절대값을 양국 요소부존비율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 요소부존비율은 각 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총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지출을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
	무역성향(+) (TRADE)	· 양국에 있어서 각 국의 총무역량(총수출, 총수입)이 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
	양국간의 지역적 거리(+) (DIST)	· 양국 수도간의 직선거리
신흥공업국에 대한 더미변수(+) (DUM)	· 신흥공업국(홍콩, 대만, 싱가포르)에는 1, 나머지는 0	

1994년, 1999년 의류 수출입액은 OECD 간행 "Foreign Trade by Commodities"(2000)²⁶⁾을, GDP, 총인구,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지출, 총무역(총수출, 총수입) 등은 UN의 Statistical Division(<http://unstats.un.org>)²⁷⁾를, 경제활동인구는 IMF 간행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1)²⁸⁾를, 양국 수도간의 직선거리는 세계지도 정보서비스(<http://www.onmap.co.kr>)²⁹⁾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한국 의류무역의 무역특화 경향

한국 의류무역에서 미국, 일본, 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시아(홍콩, 중국) 등의 주요 교역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4>와 같다.

<표4> 한국 총의류수출, 총의류수입에서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의 비중

(단위: 백만달러 %)

년도	수출입 총액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홍콩	중국	비중합	
의류수출	1990	8019.6	41.5	30.8	7.2	2.8	1.9	0.6	0.4	0.2	85.4
	1992	6868.0	40.3	31.6	6.9	2.8	1.9	0.9	0.4	0.2	84.9
	1994	5692.6	40.2	35.8	5.4	1.6	1.3	0.3	0.7	0.9	86.1
	1996	4237.4	36.1	33.1	5.4	2.0	0.8	0.2	1.2	2.1	81.0
	1998	4662.9	44.4	20.6	4.2	2.5	1.2	0.3	1.9	2.1	77.2
	2000	5039.9	48.6	21.4	3.6	3.3	1.9	0.5	0.4	3.3	83.1
의류수입	1990	150.7	4.5	19.8	4.5	3.8	7.8	35.9	7.9	1.5	85.6
	1992	271.6	4.0	13.4	2.5	2.5	2.8	21.1	3.3	28.8	78.5
	1994	699.7	3.1	6.1	1.5	2.4	3.0	23.8	3.8	42.1	86.0
	1996	1516.8	4.5	4.2	1.3	2.5	2.5	23.8	11.2	39.9	89.9
	1998	511.0	2.8	3.6	1.0	1.9	1.6	13.4	5.2	58.9	88.5
	2000	1317.6	2.0	4.4	0.8	2.3	1.3	11.1	2.1	68.3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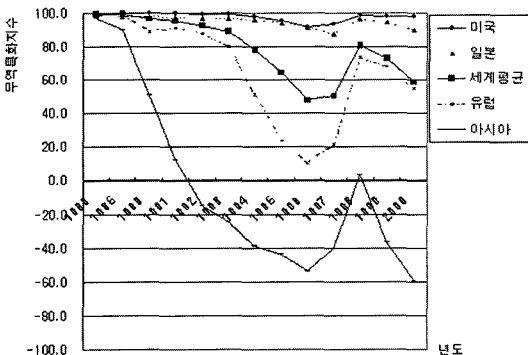
<표4>와 같이 한국의 주요 의류수출지역은 199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의 경향이 다소 바뀌어,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일본>독일>영국>중국>프랑스>이탈리아, 홍콩 순으로 중국이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의 주요 수출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주요 수입지역은 199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이탈리아, 일본, 중국이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여 2000년에는 총의류수입의 약 2/3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세계 시장 및 주요 교역지역에 대한 수출입을 근거로 한국 의류무역의 무역특화경향을 보면 <그림1>, <그림2>와 같다. 먼저 세계 시장에 대한 무역특화 경향을 보면, <그림1>과 같이 1990년대 이전에는 강한 수출특화 경향을 띠다가 그 후 점차 하락하여 2000년에는 57.2 정도로 크게 약화되었다. 주요 교역지역별로 보면, <그림2>와 같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미국,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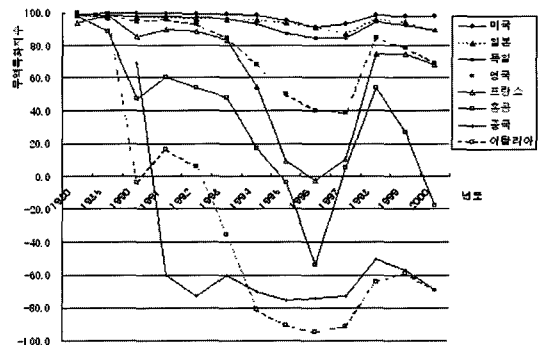
1990~2000년 내내 무역특화지수가 80.0 이상의 강한 수출특화를 이루었지만 유럽, 아시아시장에 대해서는 수출특화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1998년을 제외하고 1992년 이후 계속 약한 수입특화 경향을 띠어 한국 의류무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무역과 아시아 개도국 시장에 대한 무역이 크게 차이가 남을 보여 주었다.

분석기간 내내 미국, 일본시장에 대하여 강한 수출특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1990년대에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5>와 같이 수출 대비 수입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교역대상지역에 속할지라도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대상국별로 분석하였다. <그림2>를 보면, 독일에 대해서는 다른 유럽국에 비해 미국, 일본과



<그림1> 한국 의류무역의 주요 교역지역에 대한 무역특화경향 I:1990-2000



<그림2> 한국 의류무역의 주요 교역지역에 대한 무역특화경향 II:1990-2000

<표5> 한국 의류무역의 주요 교역지역에 대한 수출입 비* : 1990-2000

(단위: 백만달러 %)

년도	세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홍콩	중국
1990	0.019	0.002	0.012	0.012	0.026	0.079	1.092	0.184	0.361
1991	0.025	0.003	0.015	0.010	0.021	0.051	0.733	4.010	0.245
1992	0.040	0.004	0.017	0.014	0.036	0.060	0.903	6.248	0.302
1993	0.058	0.005	0.019	0.018	0.081	0.091	2.158	4.528	0.314
1994	0.123	0.010	0.021	0.034	0.187	0.291	9.336	5.761	0.712
1995	0.217	0.023	0.031	0.069	0.333	0.835	20.598	6.995	1.080
1996	0.356	0.045	0.045	0.085	0.429	1.047	35.908	6.812	3.325
1997	0.333	0.033	0.068	0.080	0.442	0.808	22.369	6.270	0.897
1998	0.108	0.007	0.019	0.026	0.084	0.146	4.576	3.014	0.302
1999	0.157	0.010	0.030	0.038	0.116	0.146	3.890	3.608	0.571
2000	0.260	0.011	0.053	0.057	0.182	0.188	5.522	5.450	1.414

* : 한국 의류무역의 주요 교역지역에 대한 (의류수입액/의류수출액)

유사한 강한 수출특화를 이루었으며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는 1990년대 전반까지는 강한 수출특화를 이루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수출특화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1997년에는 <표5>와 같이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수출특화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유럽국 중 유일하게 수입특화 경향을 띠었다. 1990년 이전까지는 강한 수출특화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쌍방무역 특성을 띠었고 1993년 이후로는 계속 수입특화의 일방무역이 진행되었다.

홍콩에 대해서는 1990년 이전까지 강한 수출특화 경향을 띠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경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특히 수입이 많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수입특화 경향을 띠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일시적인 경제 불황기에는 수출 감소보다 더욱 큰 수입 감소로 다시 수출특화로 돌아섰으나 2000년에 다시 수출특화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향후 한국의 홍콩에 대한 의류무역은 수입특화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1990년대 내내 수입특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4>, <표5>와 같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류무역은 수입특화 경향을 띠리라 예상되지만 앞으로 중국의 시장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중국에 대한 수출강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 1990년 이후 한국 의류무역의 무역특화경향을 보았을 때 전반적인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수출특화 경향이 크게 약화되고 일부 대상국에 대해서는 강한 수입특화 경향도 나타나 향후 한국의 의류무역은 기존의 수출특화 형태가 더욱 약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경향 분석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편향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방-쌍방무역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무역특화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일방무역 경향이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쌍방무역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³⁰⁾

<그림1>에서 한국 의류무역은 1980~2000년에 대체로 수출특화의 일방무역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1993~1997년에는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로 일방무역 경향이 약화되고 쌍방무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1998~2000년에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와 함께 더 높은 수입 증가로 쌍방무역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의류무역의 쌍방무역 증가 경향은,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의 무역구조가 과거의 공정간 분업형 산업구조에서 점차 동일한 기술수준으로 생산되는 제품(또는 완제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산업내

〈표6〉 한국 의류무역의 주요 무역국에 대한 일방무역, 쌍방무역 추이

대상국	무역유형	1990	199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국	일방무역	.884(84)	.875(84)	.854(82)	.684(65)	.615(59)	.594(57)	.854(82)	.811(77)	.884(84)
	쌍방무역	.084(8)	.093(9)	.125(12)	.274(26)	.386(37)	.396(38)	.146(14)	.158(15)	.116(11)
	총품목수	95(3)	96(3)	96(2)	95(4)	96(0)	96(1)	96(0)	95(3)	95(0)
일본	일방무역	.823(79)	.779(74)	.781(75)	.719(69)	.604(58)	.510(49)	.854(82)	.729(70)	.635(61)
	쌍방무역	.167(16)	.148(14)	.156(15)	.240(23)	.396(38)	.490(47)	.135(13)	.240(23)	.344(33)
	총품목수	96(1)	95(7)	96(6)	96(4)	96(0)	96(0)	96(1)	96(3)	96(2)
홍콩	일방무역	.529(46)	.506(41)	.435(40)	.360(31)	.356(32)	.409(36)	.596(53)	.409(36)	.420(37)
	쌍방무역	.275(24)	.383(31)	.413(38)	.535(46)	.611(54)	.556(50)	.382(34)	.238(21)	.431(38)
	총품목수	87(17)	81(9)	92(14)	86(9)	90(3)	88(3)	89(2)	88(21)	88(13)
중국	일방무역	.623(48)	.791(68)	.637(58)	.553(52)	.642(61)	.563(54)	.281(27)	.305(29)	.406(39)
	쌍방무역	.195(15)	.198(17)	.330(30)	.436(41)	.347(33)	.437(42)	.719(69)	.684(65)	.594(57)
	총품목수	77(14)	86(1)	91(3)	94(1)	95(1)	96(0)	96(0)	95(1)	96(0)
독일	일방무역	.802(73)	.826(71)	.719(64)	.598(52)	.533(24)	.578(26)	.738(31)	.701(61)	.716(63)
	쌍방무역	.066(6)	.128(11)	.135(12)	.264(23)	.467(21)	.400(18)	.238(10)	.161(14)	.159(14)
	총품목수	91(12)	86(4)	89(13)	87(12)	45(0)	45(1)	42(1)	87(12)	88(11)
영국	일방무역	.750(69)	.750(60)	.705(62)	.500(43)	.517(45)	.571(52)	.707(58)	.714(60)	.690(58)
	쌍방무역	.109(10)	.113(9)	.170(15)	.291(25)	.436(38)	.407(37)	.281(23)	.179(15)	.179(15)
	총품목수	92(13)	80(10)	88(11)	86(18)	87(4)	91(2)	82(1)	84(9)	84(11)
프랑스	일방무역	.633(57)	.630(58)	.489(44)	.505(47)	.527(49)	.587(54)	.663(55)	.620(54)	.663(59)
	쌍방무역	.233(21)	.152(14)	.333(30)	.377(35)	.462(43)	.402(37)	.289(24)	.195(17)	.180(16)
	총품목수	90(12)	92(20)	90(16)	93(11)	93(1)	92(1)	83(4)	87(16)	89(14)
이탈리아	일방무역	.522(48)	.539(48)	.771(74)	.844(81)	.833(80)	.809(76)	.705(67)	.660(62)	.674(64)
	쌍방무역	.402(37)	.303(27)	.198(19)	.125(12)	.146(14)	.171(16)	.274(26)	.266(25)	.274(26)
	총품목수	92(7)	89(14)	96(3)	96(3)	96(2)	94(2)	95(2)	94(7)	95(5)

* 일방무역, 쌍방무역의 수는 총수출의류품목에 대한 일방무역품목, 쌍방무역품목의 비이며 괄호안 수는 품목의 갯수임.

* 총품목수의 괄호안 수는 미분류된 품목의 갯수임

무역(쌍방무역)으로 변화하 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볼 때 바람직한 추세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한국이 산업내무역(쌍방무역)의 증가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화에 대비하고 무역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³¹⁾³²⁾³³⁾

한편 1990년대 중반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쌍방무역) 증가 현상은 점진적인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의류무역의 바람직한 방향, 즉 수출이 확대되면서 그와 함께 수입도 증가하는 쌍방무역 증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의류수출 확대를 통한 쌍방무역 구조를 갖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의류무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산업내무역 경향을 Fontagne & Freudenberg³⁴⁾의 일방-쌍방무역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교역대상국별 쌍방무역 정도를 보면, 한국 의류무역은 홍콩, 중국과의 교역에서 쌍방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이태리를 제외한 유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쌍방무역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반면에 미국, 일본, 이태리와 쌍방무역 비중은 분석기간 내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홍콩과 가장 크게 쌍방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양국간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적을수록 쌍방무역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 여러 연구 결과와도³⁵⁾³⁶⁾³⁷⁾³⁸⁾ 일치되는 것이었다.

이상 1990년대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쌍방무역) 경향을 종합해 보면, 한국 의류무역은 전반적으로 수출편향의 일방무역 경향이 강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산업내무역(쌍방무역)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보다는 특히 홍콩,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서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역대상 38개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7>, <표8>에 한국 의류무역의 38개국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Grubel-Lloyd 지수) 및 각 독립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산업내무역 결정요인 회귀분석은 <표8>의 독립변인 중 양국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DKL) 요인이 양국간 경제규모의 차이(KL)요인 및 양국간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DPCI)요인에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DKL) 요인을 제

<표7> 한국 의류무역의 38개국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G-L지수)

대상국	1994년	1999년	대상국	1994년	1999년
말레이시아	.445	.884	독일	.065	.072
태국	.128	.829	콜롬비아	.006	.071
인도	.271	.773	오스트레일리아	.098	.069
홍콩	.832	.727	핀란드	.046	.058
포르투갈	.759	.653	일본	.041	.057
오스트리아	.389	.571	러시아	.003	.043
인도네시아	.954	.488	뉴질랜드	.362	.033
중국	.296	.434	브라질	.074	.026
이태리	.194	.409	스페인	.263	.026
프랑스	.450	.254	미국	.019	.020
필리핀	.992	.237	폴란드	.006	.013
스위스	.099	.226	덴마크	.018	.012
대만	.339	.217	노르웨이	.018	.010
영국	.315	.208	캐나다	.013	.006
이스라엘	.	.171	스웨덴	.012	.004
네델란드	.120	.115	이집트	.002	.002
그리스	.201	.095	칠레	.002	.000
아일랜드	.781	.079	나이지리아	.023	.000
싱가폴	.117	.074	아르헨티나	.038	.000

* 국가의 순서는 1999년 기준의 산업내무역지수가 큰 순서대로 임.

<표8>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년도	변인	G-L지수	LAY	KL	DIST	DUM	TRADE	DKL	DLAY	DPCI
1994	산업내무역 지수(G-L지수)	1.000								
	양국의 경제규모(LAY)	-.209	1.000							
	양국간 요소부존비율(KL)	-.104	.421**	1.000						
	양국간 지리적 거리(DIST)	-.376*	-.015	-.013	1.000					
	신흥공업국에 대한 더미변수(DUM)	.201	-.145	.297*	-.484***	1.000				
	양국간 무역성향(TRADE)	.291*	-.317*	.287*	-.337*	.745***	1.000			
	양국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DKL)	.059	-.203	-.718***	-.282*	-.148	-.135	1.000		
	양국간 경제규모의 차이(DLAY)	.101	.056	.042	.020	.012	.182	.092	1.000	
	양국간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DPCI)	-.047	.018	-.401**	-.288*	-.203	-.101	.790***	.065	1.000
1999	산업내무역 지수(G-L지수)	1.000								
	양국의 경제규모(LAY)	-.146	1.000							
	양국간 요소부존비율(KL)	-.233	.334	1.000						
	양국간 지리적 거리(DIST)	-.411**	-.040	.075	1.000					
	신흥공업국에 대한 더미변수(DUM)	.135	-.133	.234	-.483***	1.000				
	양국간 무역성향(TRADE)	.328*	-.327*	.215	-.366*	.694***	1.000			
	양국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DKL)	.258	-.101	-.624***	-.292*	-.149	-.031	1.000		
	양국간 경제규모의 차이(DLAY)	-.043	.125	-.008	.036	-.077	.143	.086	1.000	
	양국간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DPCI)	.191	.059	-.360*	-.270*	-.185	-.053	.878***	.171	1.000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9〉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회귀분석 결과

결정요인	1994년	1999년
양국의 경제규모(LAY)	-0.053(-0.248)	0.087(0.452)
양국간 요소부존비율(KL)	-0.227(-1.012)	-0.280(-1.466)
양국간 지리적 거리(DIST)	-0.504(-2.483*)	-0.360(-1.867)
신용공업국에 대한 터미변수(DUM)	-0.313(-1.135)	-0.366(-1.525)
양국간 무역성향(TRADE)	-0.356(1.268)	0.558(2.261*)
양국간 경제규모의 차이(DLAY)	0.082(0.499)	-0.147(-0.905)
양국간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DPCI)	-0.315(-1.698)	0.025(0.140)
F값	1.675	2.173
R ²	0.288	0.336

각 변수의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이며 괄호안은 t값임. * $p < 0.05$

외하고 분석하였다.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표9>와 같이 1999년에는 무역성향(TRADE) 요인만이, 1994년에는 양국간의 지리적 거리(DIST)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의류무역의 쌍방무역은 양국간의 무역성향이 클수록, 양국간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Jones³⁹⁾영국의 의류수출에 대한 분석에서 영국이 주로 EU시장에 의류수출을 집중하고 있는 것(1992년에 66.6%, 1996년에 69.8%, 1997년은 67.4%)과도 관련된다. 즉 Jones는 영국의 의류수출이 영국의 인접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의류무역이 글로벌적 관점과는 달리 문화적, 물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Zhang⁴⁰⁾은 1992년의 OECD국들의 의류수출 분석에서 무역상대국과의 거리와 무역상대국의 규모(인구로 측정)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역상대국의 규모가 클수록,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앞으로 한국은 의류제품을 개성화, 고급화하여 선진국 시장에서 후발개도국과 계속 차별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출정책 및 마케팅 활동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의류수출에서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8%에서 1994년 3.0%,

1998년 8.4%, 2000년 4.4%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일본, 대만 통계 제외)에 있고⁴¹⁾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직접수출 외에도 많은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해외직접투자액은 1991년 1억7천만 달러, 1995년 9억4천만 달러, 2000년 4억4천만 달러,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⁴²⁾ 이러한 기회를 발판삼아 아시아 시장에 더욱 수출을 확장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류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1990-2000년을 중심으로 산업내무역이론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 의류무역의 구조와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출특화 및 수입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1990년 이후의 한국 의류무역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선진국, 신용공업국, 후발개도국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산업내무역 경향이 교역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의류무역은 1990년 이후 전반적인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수출특화 경향이 약화되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강한 수입특화도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향후 의류무역은 기존의 수

출특화 형태가 더욱 약화되는 경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1990년대 한국 의류무역의 일방-쌍방무역 경향을 통해 산업내무역 경향을 종합해 보면, 한국 의류무역은 전반적으로 수출편향의 일방무역 경향이 강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산업내무역(쌍방무역)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보다는 특히 홍콩,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은 1994년에는 양국간의 지리적 거리(DIST) 요인만이, 1999년에는 무역성향(TRADE) 요인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의류무역의 산업내무역은 양국의 무역성향이 클수록, 양국간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전체 산업 혹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 비교해 유의한 설명 변수가 적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의류무역을 설명하는 고유의 변수들을 찾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적절한 변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1) 이영선 (1987). 산업내무역의 결정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경제연구* 1(1).
- 2) 김남두, 유재원 (1999). 한미간 산업내무역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발전연구* 5(1), pp.1-24.
- 3) 배재동 (1995). 한국과 OECD회원국간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우진 (1994). 한국의 산업내무역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영남 (1991). 한국의 산업내무역 현황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원복 (1999). 한일간 산업내무역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수철 (1996). 산업내무역의 측정방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윤 식 (1990). 산업내무역의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영남 (1991). Op. cit.
- 10) 이영선 (1987). Op. cit.
- 11) 김승진 (1988). 산업내무역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 12)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 13)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 14)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 15) OECD.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 CD-ROM*.
- 16) 김승진 (1988). Op. cit.
- 17) Fontage, L. & Freudnberg, M. (1997). "Intra-industry Trade : Methodological Issues Reconsidered". *Working Paper 97-01*. CEPIL.
- 18) Loertscher, R. & Wolter, F. (1980).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ountriesand across Indus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16, pp.280-293.
- 19) Balassa, B. & Bauwens, L. (1987).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a Multi -Country and Multi-Industry Framework". *The Economic Journal* 97(December), pp.923-939.
- 20) 김승진 (1988). Op. cit.
- 21) 김영남 (1991). Op. cit.
- 22) 이원복 (1999). 한일 간 산업내무역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임재홍 (1987). 산업내무역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24) 김남두, 유재원 (1999). Op. cit.
- 25) Grubel, H. G. & Lloyd, P. J. (1975). *Intra - industry :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Macmillan Press Ltd.
- 26)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 27) UN. Statistical Division: <http://unstats.un.org>.

- 28)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1).
- 29) 세계지도 정보서비스: <http://www.onmap.co.kr>
- 30) 임재홍 (1987). Op. cit.
- 31) 이영선 (1980). Op. cit.
- 32) 김승진 (1988). Op. cit.
- 33) 박상현 (1998). 한국 무역구조의 분석 : 한 · 미 · 일간의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Fontage, L. & Freudberg, M. (1997). Op. cit.
- 35) Loertscher, R. & Wolter, F. (1980). Op. cit.
- 36) Balassa, B. & Bauwens, L. (1987). Op. cit.
- 37) 이영선 (1987). Op. cit.
- 38) 김우진 (1994). Op. cit.
- 39) Jones, R. M. (1998). The Global reach of the UK clothing sector - Part 2.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2(3), pp.240-256.
- 40) Zhang, Z. (1997). Counter-flow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apparel: Exporting by OECD countries and importing by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1(3), pp.223-237.
- 41) 지혜경 (2005). 한국 수출의류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별 특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3), pp.145-156.
- 4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http://www.koreaexim.go.kr>